

권춘식씨 87세 최고령 대학졸업 환영회

지난 3월1일 오전11시, 영주시 이산면 원리 복지회관에서 87세 최고령 대학졸업자 권춘식씨(영주. 검교공과 33세의 환영회가 열렸다. 이날 권정씨의 사회로 권춘식씨의 인사말에 이어 대영교 정태주 교장의 축하패, 보통학교동문회 정달주선생과 권오걸씨의 축사, 권유석 이산면 원리노인회장의 꽃다발 증정, 권영갑 이산면추진회장, 권영순 前교장, 김진영 영주시장 축사로 환영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편 “자식을 많이 ‘우리 아버지는 숨겨진 천재’래, 나보고 ‘뭘 모른다’던 손주들도 태도가 싹 바뀌었어”



▲권정씨의 권춘식씨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를 졸업한 권춘식(87)씨는 올해 방송대 최고령 졸업자다.

2005년 최고령 고입 검정고시 합격, 1년 만인 2006년 최고령 대입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올해 방송대 최고령 졸업자로 단상에 오르게 됐다. 권씨는 일제 치하였던 1942년 지금의 초등학교인 보통학교를 졸업한 학력의 전부였다.

2003년 함께 살던 아버지마저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자 권씨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 돈 벌 필요도 없고, 할일이 없으니 어릴때 못했던 공부가 하고 싶어 경북 영주

YMCA에서 운영하는 야학에서 공부를 시작해 4개월만에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어 영주에 있는 청년학교에서 공부해 8개월 만에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고 2007년 방송대 문화교양학부에 입학했다.

권씨는 방송대 특성상 인터넷으로 듣는 수업이 많았지만 손주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쳐줘 전혀 힘들지 않았으며 이전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게 취미가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컴퓨터의 영어는 어려웠다. 결국 두 과목은 과락해 컴퓨터는

재수강했고 영어는 한문으로 대체해 5년 만에 졸업장을 받게 됐다.

졸업 논문으로 제출한 ‘순흥부 단종 복위사건에 관한 연구’는 우수 졸업 논문으로 뽑혔다. 그 열정은 이제 대학원 진학에 대한 꿈으로 발전했다.

한문과 풍양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지난해 11월 경북지원의 한 대학원 한문학부에 지원했지만 낙방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2012. 2. 20 이미지기자 인용)

기업정보

권오철 하이닉스 반도체 (주)사장

“SK 업고 세계 최고 도약”

하이닉스가 SK의 모바일 경쟁력과 시너지를 통해 세계 최고 반도체기업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권오철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은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시대를 맞아 성장성이 보장된 하이닉스가 재무적 안정성을 가진 SK와 결합했다”며 하이닉스와 SK텔레콤이 모두 모바일 생태계 안에 있으므로 모바일 진화 방향을 함께 이해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사장은 최신 D램 양산계획과 관련, 20나노급 공정제품을 올해 2분기부터 양산, 선두기업(삼성전자)과 격차를 줄일 것이라며 20나노급 이후는 차세대 메모리 추진 등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모리반도체를 잇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해 D램과 낸드플래시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4%와 12% 수준인 만큼 확고한 우위를 차지한 후 시스템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우시 D램공장 운영계획과 관련



해선 우시공장은 지속적으로 하이닉스 본사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사장은 D램업계 3위 일본 엘피다의 파산보호신청 영향

에 대한 질문에 엘피다의 영향으로 D램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올해 중후반에는 상황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한국회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태원 SK회장의 역할에 대해 권사장은 최 회장이 하이닉스와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최 회장이 보유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하이닉스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12. 3. 14, 11면 경쟁력 기자 인용)



석호(石虎)는 후조의 황제가 된 다음에 큰 아들 석선(石宣)을 태자로 세웠는데, 또 다른 아들인 진공(秦公) 석도(石濤)를 총애하였다. 이 때문에 석선과 석도 형제는 서로 시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석도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방자한 짓을 많이 하였다. 한번은 대들보가 9장(丈)인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태자 석선은 가서 이 대들보를 잘라 버리고 갔다. 화가 난 석도는 다시 10장(丈)인 대들보를 구해다가 건물을 지었다. 어저장을 놓은 것이다. 형제는 더 이상 화합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태자 석선은 동생 석도가 연회를 베풀고 불장사(佛講寺)에 가게 된 것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하였다. 그래서 밤중에 양배 등에게 불장사로 들어가서 석도를 죽이게 하였다. 이어서 민약에 석도의 장례식에 아버지 석호가 참석한다면 그 때에 아버지가 죽이고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갈 계획도 세웠다.

황제 석호는 총애하는 아들 석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까지 하였다가 소생하였다. 그리고 석도의 주검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상례(喪禮)에 참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사공인 이농(李農)이 이를 만류하였다. 석도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경사(京師)에 아직 머물러 있을 수 있으므로 황제가 가볍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석호는 군사를 풀어서 엄하게 경계하고 궁궐 안에 있는 태극전에서 애도(哀悼)하는 의식을 치렀다.

동생 석도를 죽인 태자 석선이 이 상례에 참석하였으나, 곡을 하지도 않고 또 나와서는 ‘하하’하면서 시체를 보고 웃으며 나갔다. 그리고 죽은 석도의 부하인 정정(鄭正)과 운무(尹武)를 잡아들여서 이들에게 석도를 죽인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황제인 석호는 석도를 죽인 범인은 태자 석선일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래서 석선을 불러 궁궐로 들어오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석선이 말을 듣지 않고 궁궐로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여 석선의 어머니 두후(杜后)가 석도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위독하게 되었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자 석선은 의심하지 않고 궁궐에 들어왔는데, 황제 석호는 그를 잡아 억류하였다.

조사 끝에 결국 석선이 양배 등을 시켜서 한 짓이 밝혀졌다. 석호는 너무 슬퍼서 석도를 죽였던 칼과 화살에 묻어 있는 석도의 피를 핥으면서 울부짖었다. 이를 본 석호의 스승 스님인 불도정(佛道證)이 석호에게 말하였다. 죽은 석

도와 죽인 석선은 모두 황제 석호의 아들인데, 지금 다시 석선을 죽인다면 화(禍)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죄는 정말로 나쁘지만 관용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였다. 그러나 석호는 태자 석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결국 석도가 총애하는 환관들에게 태자 석선의 머리칼락을 한 움큼 뽑고 혀를 뽑고, 손발을 자르게 하고 눈을 뽑고 창자를 터뜨려서 석도가 죽은 것처럼 죽였다. 그리고 화형에 처하였다. 뿐만 아니라 석선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태자 궁에 있던 석선의 호위병까지 다 죽였다. 또 그 생모인 두황후도 폐위시켰고 태자 석선이 살던 동궁(東宮)을 폐지우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원수 갚듯 하였지만 결국 석호도 병이 났다. 그 해에 석호도 죽고 후조는 그 후 2년을 더 버티지 못하고 멸망한다.

다름의 출발은 조그만 자존심과 화를 참지 못해서 나왔다. 상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참는 아량이 아버지만 황제 석호, 태자 석선, 그리고 동생 석도에게는 조금도 없었다. 대단하지도 않은 자존심과 고집만 피우자 옆에서 그래도 참으라는 충고를 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일시적인 분노로 전체를 망가트린 예였다.

요즈음 우리의 주변에도 이러한 꼴은 많다. 여아의 싸움도, 재벌 형제간의 싸움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그뿐이랴! 보잘 것 없는 소시민의 가정에도 이러한 일은 비밀비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임원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권기덕(부총재) 100만원 △권봉도(부총재) 100만원 △권혁용(부총재) 100만원 △권혁승(상임부총재) 100만원 △권찬혁(부총재) 100만원 △권순선(부총재) 100만원 △권영환(감사) 100만원 소계 700만원	■ 대의원회비 △권오달(영주) 10만원 △권영길 10만원 △권태웅(이천동) 10만원 △권태경(밀양) 10만원 △권윤성(안동) 10만원 △권기순(대구) 10만원 △권병근(합천) 10만원 △권병후(수원) 10만원 △(농협 서진주) 10만원	△권혁재(대구) 20만원 △권대길(구미) 20만원 △권오진(석주공총회) 20만원 △권충강(대구) 20만원 △권도혁(대구) 20만원 △권재목(부산) 200만원 소계 240만원	△(농협 유천동) 10만원 △권인순(대전) 10만원 △권혁조(안동) 10만원 △(대구 달서우체국) 10만원 △(대구 노변지점) 10만원 △권정택(일산) 10만원 소계 150만원	소 계 75만원 합 계 1,165만원
--	---	--	--	-------------------------

권혁세 금감원장 “재벌체제 무너지면 투자줄어 국민 모두 고통”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한국의 재벌체제가 무너지면 전체 투자가 줄어들 결국 국민 모두가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등이 경쟁적으로 ‘재벌 때리기’에 나선 현상에서 금융당국 고위 인사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권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장 직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재벌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2006년 이후 계속된 규제완화 정책으로 분야별 확장과 경영권 왜곡 같은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고용 수출 성장 면에서 재벌이 경제에 기여한 공이 절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의 부분적인 문제는 가위로 썬 가지를 잘라내듯 풀면 되는데, 정치권은 도끼로 나무의 몸통을 찍는 식으로

접근한다”며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권원장은 금감원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55개 중 공기업, 채권단 관리기업, 금융사 등을 제외한 36개 대기업그룹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36개 대기업 그룹에 속한 근로자 수는 2010년 말 현재 100만 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2007년 말보다 16만 명 늘었다. 늘어난 고용이 설비투자 증가와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서 대기업의 수출규모는 2007년 2300억 달러에서 2010년 3000억 달러로 급증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전반의 고용여력이 바닥을 드러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통계들은 재벌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핵심 역할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재벌이 성장을 주도한 덕분에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넘겼는데 재벌의 근간을 흔들면 국부(國富)가 급감해 전 국민이 허리를 잘라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2. 24 1면 홍수용기자 인용)

기행문

先進 西部유럽 探訪

■ 권 계 동 (본원상임부총재)

〈지난호에 이어〉
18) 교황의 선출장소인 시스틴 소성당 시스틴 소성당은 교황 식스투스 4세를 위해 조반니노 데돌치가 축조했다고 하였다. 성당의 벽화 중에 모세의 일생과 그리스도의 일생을 묘사한 것은 구약과 신약 성서를 각각 상징한다고 하였다.

천장화의 중앙부분은 구약성서의 천지창조의 일화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서 ‘빛과 어둠의 분리’ ‘해와 달의 창조’ ‘물과 땅의 분리’ ‘이브의 창조’ ‘이브의 창조’ 등이 그려져 있었다.

성당의 벽을 채우고 있는 위풍당당한 벽화인 ‘최후의 심판’을 완성한 것은 22년 후 교황 클레멘트 7세의 부름을 받고 미켈란젤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 착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벽화에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한 주제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이는 인간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기 위한 대상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르네상스 정신과 상통된다고 하였다.

19) 무덤 위의 성 베드로의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은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황 실베스터 1세에 의해 축성되었다고 하였다. 천장이 높고 실내가 넓은 방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돔의 천장은 조명을 위해 만들었으며 211.5m 길이의 천장 천부바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예수가 세례를 받는 모습의 모자이크 그림도 있었고 예수의 시신을 안고 슬픔, 애痛, 비탄의 표정으로 기도를 올리는 성모 마리아의 상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가슴부んの 어깨에 그의 서명이 보였다. 이 조각상의 성모마리아가 예수보다 더 젊어 보이는 것이 이상하였다 벽에 있는 그림들은 모두 그린 것이 아

니고 여러 가지 색의 대리석으로 모자이크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베드로 청동상의 발발을 만지면 모든 죄가 사면된다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지 하버드동상의 구두 끌과 같이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들도 한 줄로 서서 발발을 만지며 기념촬영을 하였다.

중앙에 위치한 교황이 집정하는 단 위에는 6개의 황금 촛대가 놓여 있었다. 실내를 한 바퀴 돌아보고 밖을 나오다가 입구에서 스위스 근위병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너른 광장에 나와 약숙장에서 기다리다가 일

행들이 다 모였을 때에 성당을 배경으로 단체 기념촬영도 하였다.

바티칸 시국의 관람료가 하루에 1억 원이라는 말은 거짓말과 같아 믿어지지 않았다. 바티칸시터에서 국경을 넘어 로마로 나와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천하제일가(天下第一家)에서 중국음식으로 점심밥을 먹었다.

20) 커다란 박물관의 도시 로마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매력적이고 사랑의 도시인 로마는 한마디의 말로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매력을 소유한 도시라고 하였다.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는 옛 유적을 그대로 보존한 채 현대문명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관광객들에게는 소매치기와 줌도둑으로 악명이 높다고 하지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는 군사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神)인 마르스와 인간인 레아



실비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레무스와 레물루스에 의해서 건국되었다고 한다.

태어난 후 테베레강에 버려진 쌍둥이 형제를 양모의 늑대가 젖으로 키웠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와 같은 로마를 세운 시조로 알려진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였다.

로마는 테베레강 하류에 접해 있으며 대부분이 구릉지대(丘陵地帶)로 이루어져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로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원의 도시’로 이탈리아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이다.

로마의 주요산업은 관광산업으로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였다. 고대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육상과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로마를 기점으로 이탈리아의 모든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국과는 8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고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발칸반도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의 영향으로 가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한다고 하였다. 한국과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보다 겨울이 좀 더 따뜻하다고 하였다.

21) 유적지의 장관 로마 공회당 로마 공회당은 각종 유적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 개선문, 사투르노 신전의 폐허, 포카 황제의 기념 원주, 베스파시아노 신전 등을 볼 수가 있었고 길바닥은 큰 돌을 깔아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 마차들이 다녔던 파인 흔적도 볼 수가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